

사랑을 위한 기적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조직신학교 교수 고 벨카우어(G. C. Berkouwer) 박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불신앙의 표식”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언급이 많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으며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왜 불신앙을 뜻하는가?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기적이 기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유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기적을 인정하고 중요시한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막 13:22) 하셨고 바울 사도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사단의 역사”일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살후 2:9)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직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기적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나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일상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안수기도로 병이 나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사가 약이나 수술로 환자를 고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지 않거나 이신론(理神論, deism)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창조는 하셨지만 그 후에는 자연의 법칙에 맡겨두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고 하셨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고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가 말했듯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있음을 함축한다. 만약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에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면 믿음을 버리고 말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나은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 긴장을 풀고 좋은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전반적으로 기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2-23)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구한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기적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기적이다. 인간은 모두 병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종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한 가르침이나 의례가 있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그런 소원을 반영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적도 거의 대부분 병 고치는 것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기적도 병의 치유와 관계가 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물론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에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인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 말씀하셨다. 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메시아는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다. 즉 병 고치는 기적에는 능력의 과시보다는 사랑과 자비의 요소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적은 귀신도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도 행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전 13:2).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를 그것에 둘 정도로 기적을 과대평가 하거나 사랑의 요소가 결여된 채 병 고침 그 자체나 능력의 과시에 초점이 놓인 신유는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다. 🌀